다산어린이 독후활동지

다판다 편의점 ② 기억을 지워 주는 싹싹 물티슈

강효미 글 | **밤코** 그림



책을 더 재미있게, 책을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

다산어린이 공식 카페에는 다양한 독서 활동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더욱 키워 주세요.



• 교과 연계 단원

[국어] 1학년 1학기 6단원. 또박또박 읽어요 [국어] 1학년 2학기 5단원. 생각을 키워요 [국어] 2학년 1학기 8단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2학년 2학기 8단원. 나도 작가 [국어] 3학년 1학기 3단원.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 이 있는 글 [도덕] 3학년 5단원. 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 키워드

#다판다편의점 #판다 #어린이 #성장 #저학년창작동화

● 책 소개

웃음과 위로까지 1+1으로 파는 판다 사장님의 두 번째 이야기!

여전히 뒹굴뒹굴하는 게 제일 좋은 판다 사장님 두둥! 오늘은 두둥이 오랜만에 편의점 문을 열기로 마음먹은 날이에요. 마침 학교에 가다가 새똥을 맞은 깜찍한 여자아이 동지가 다판다 편의점에 찾아왔어요. 동지는 새똥 맞은 걸 장난꾸러기 오만재가 봤다며, 싹싹 잘 닦이는 물티슈를 찾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어찌나말이 많은지 두둥은 벌써부터 피곤해졌어요. 두둥이 가장 싫어하는 손님이 바로 말이 많은 손님이잖아요. 물티슈를 고르며 한참을 떠들던 동지가 마침내 외쳤어요.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골라 주세요!" "뭐라고? 사장님 마음대로?" 마법의 문장을 들은 두둥이 180도 변신했어요. 흥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신이 난 두둥, 이번엔 또 어떤 신기한 물건을 소개해 줄까요?

^{활동} ● 『다판다 편의점』 2권은 어떤 책일까?

『다판다 편의점 2』의 표지예요. 제목과 부제목, 그림 등을 잘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 질지 자유롭게 상상해 써 보세요.



^{활동}<**만다 사장님의 하루**

판다 사장님의 하루예요. 이 중에서 맞는 것에는 O, 틀린 것에는 X 표시를 해 보세요.



집에서 푹 잔다.



장사를 하지 않는다.



언제나 잘 먹는다.



편의점 청소를 한다.

^{활동}❸ 다판다 편의점 등장인물

『다판다 편의점 $2_{ exttt{J}}$ 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만재

두둥

덩치 큰 판다

동지

"얘들아, 들어 봐! 동지가 새똥을 맞았대. 그러니까 동지는 이제 동지가 아니라 똥지다, 똥지! 우하하!"

"이크, 어쩜 좋아! 엄마가 기억에서 날 지워 버렸나 봐!" "어휴, 내가 또 사장님 마음대로라는 말에 흥분했나 봐. 아차차, 이번엔 청소까지 했잖아?"

"오늘부터 다판다 편의점은 두둥이 아니라, 둥둥이 맡는다!"

동지는 오늘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동지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만약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괄호 안에 내 이름을 적고 자유롭게 써 보세요.





동지의 선택



()의 선택



동지의 선택

()의 선택

^{활동} 이 기억을 지우는 물티슈

다판다 편의점에서 판매한 기억을 지워 주는 물티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물

티

슈

동지가 물티슈를 사용해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축구 시합에서 상대편이 먼저 골을 넣자 축구공을 닦아 기억을 지운다.
- ② 급식 시간에 좋아하는 돈가스를 더 먹으려고 식판을 닦아 기억을 지운다.
- ③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칠판을 닦아 기억을 지운다.
- ④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3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닦아 기억을 지운다.

동지는 두둥에게 혼이 나더라도 모두가 자신을 기억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나에게도 지우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나요? 제일 소중한 기억을 딱 1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활동} 1+1 할인을 합니다!

다판다 편의점에는 신기한 물건이 가득해요. 심지어 할인도 한대요. 다판다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마음껏 상상해서 써 볼까요?





뭉게뭉게 우유	
3분 멈춰 컵라면	
신통방통 신문	
비시러 우산	

다판다 편의점 사장님이 두둥에서 둥둥으로 바뀌었어요. 두둥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두둥은,